



2022. 10. 27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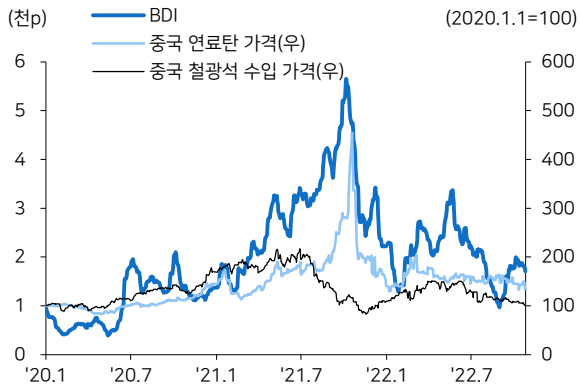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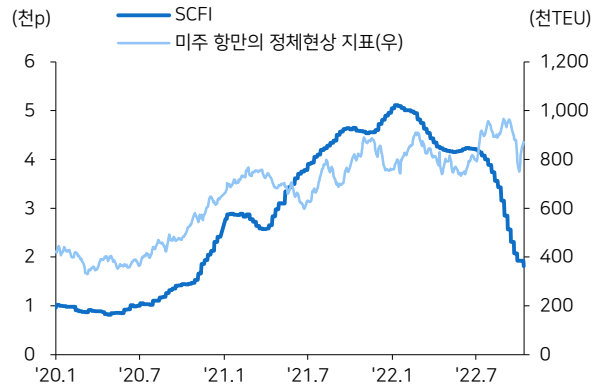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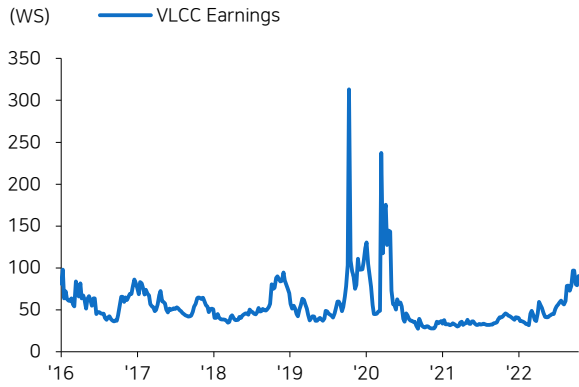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06.0p(-4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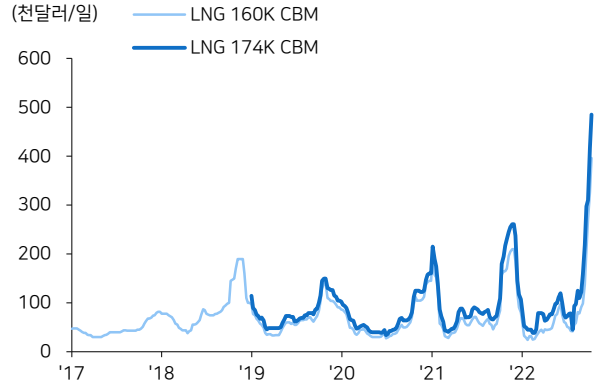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78.7p(-35.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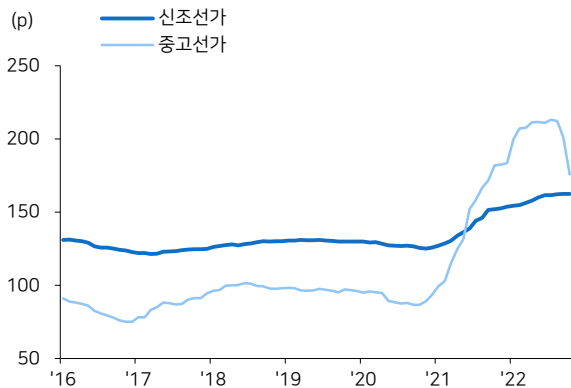
VLCC Spot Rate 103.8p(+13.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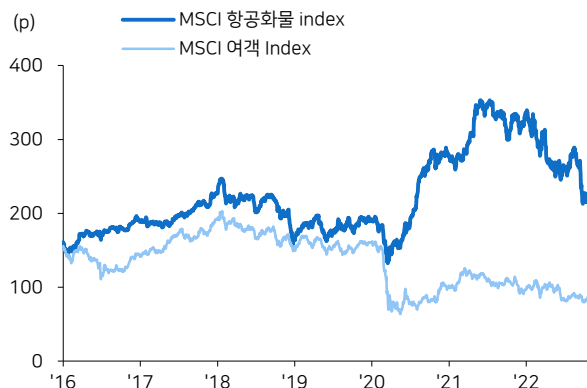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442.5p(+46.3p WoW)
485.0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8p(+0.1p WoW)
174.7p(+0.0p WoW)



항공시장 지표 232.5p(+3.5p DoD)
88.8p(+0.6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Yangzijiang cracks LNG newbuilding market with order for two ships

중국 Yangzijiang 조선이 독일 선주로부터 대형 LNG선을 수주하며 LNG 건조시장에 데뷔를 했다고 보도됨. 175,000CBM급 선박 2척으로 2025~26년 인도될 예정임. 선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로커들은 최소 2.3억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 (Tradewinds)

Overcapacity in container ship market unlikely to be eased by scrapping, analysts say

노후선박의 폐선으로 향후 2년간 인도선박에 따른 컨테이너선 초과 공급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보도됨.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노후선박은 도합 310만TEU에 불과함. 그러나 2023~24년 인도될 신조선은 510만TEU에 달한다고 언급됨. 2025년까지는 총 730만TEU로 현재 선대의 28.3%에 달하는 수준임. Clarkson는 선박 증가율을 2022년 3.7%, 2023년 7% 이상으로 전망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

사우디, 미국과 거리 넓히나...중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 협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빈 살만 왕자와 중국의 장젠화 국가 에너지국장장은 지난 21일 화상 회담에서 사우디에 중국 제조업체들을 위한 '지역 허브'를 구축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알려짐. 일대일로 사업에서의 협력과 공동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음. (시사저널)

에너지난 유럽 가스價, 러 공급중단 후 처음으로 100유로 하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처음으로 100유로/MWh를 밑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업계에서는 따뜻한 날씨와 에너지난을 우려해 비축해 둔 재고 덕분에 분석한다고 알려짐. 24일 네덜란드 TTF거래소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약 20% 하락한 93.35유로를 기록함. 러시아가 유럽향 가스 공급을 간헐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저치임. (조선Biz)

ExxonMobil makes two new discoveries offshore Guyana

미국 ExxonMobil이 가이아나 해상에서 2개 광구를 발견했다고 보도됨. Sailfin-1 광구는 약 95미터 층의 탄화수소 사암이고, Yarrow-1은 23미터 층으로 알려짐. 다만, Banjo-1 탐사에서는 상업성이 있을 만큼의 매장량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Upstream)

"코로나 전으로"...항공사들 '최대 먹거리' 中 노선 재개 사할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과 일본 노선 재취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항저우 노선을 11월 2일부터 주 1회, 선전노선은 11월 29일부터 주 1회 운항을 재개할 예정임. 대한항공은 이달 말 기준으로 인천~톈진·광저우·선양·다롄 등 4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임. 중국 노선 운항은 주 3회에서 6회로 늘어날 예정임. (한국경제)